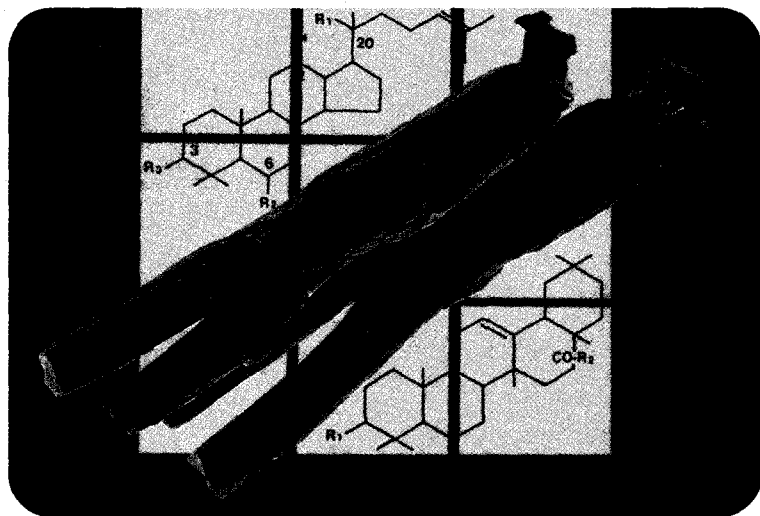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환자의 인삼요법

인삼의 혈당강하 효과의 연구 결과 확인



자료제공: 한국담배인삼공사

오래전부터 인삼을 “신비의 영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옛부터 많은 질병을 치료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약으로서도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에도 효험을 발휘하는 인삼의 효능 때문이다. 인삼의 효능은 수천년 동안의 자료를 집대성한 한방의서에 의하면 지구력과 신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피로와 두통을 예방하며, 식욕부진과 불면증을 치료하고,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대시키며, 신체기능의 조화를 가져오고,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며, 질병과 노쇠현상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효과를 종합하여 간단히 설명한 것이 전래의 인삼 칠효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인삼 칠효설을 보면,

1.보기구탈(補氣救脫): 원기를 보하여주는 각종 급만성의 병으로 인하여 체력이 쇠약해졌을 때나 일시적인 허탈상태에 효과가 있

다. 즉 체력을 증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2.익혈복맥(益血復脈): 혈액생성을 왕성하게 하여 좁아져서 폐장과 비장의 기능을 도와주며 빈혈로 인한 전신의 신진대사이상을 개선함과 동시에 조혈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준다.

3.양심안신(養心安神):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부전이나 심장의 기능 저하로부터 야기되는 정신불안을 해소한다. 즉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4.생진지갈(生津止渴): 인삼은 폐와 비장 및 위의 기능 부족을 개선하여 전신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며, 인체가 필요로 하는 체액을 충당하여 좁아져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즉 당뇨병 치료에 유효하다.

5.보폐정천(補肺定喘): 폐의 기능이 약하

여 일어나는 천식 및 해수 등의 증상을 보하고 아울러 비위의 기를 도와 정기를 충실케 해준다. 즉 호흡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

6.건비지사(健脾止瀉): 장관을 튼튼하게 하여 줌으로써 설사를 멈추게 하며,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기능을 돕는다.

7.탁독합창(托毒合瘡): 체내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대사기능부전으로 인하여 발생되기 쉬운 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증진시켜주며, 피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종양에 대해서도 유효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삼 칠효설 말고도 최근에는 미국의 당뇨병 학회에서 발행되는 "DIABETS CARE" 15권 10호에서는 핀란드의 OULU의과대학의 EFRO 교수팀이 발표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삼요법'에 대한 글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당뇨병 환자에 인삼투여는 기분과 정신적 육체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감소시킨다는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른 인삼의 당뇨병에 대한 유용성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 36명(남 20명, 여 16명, 평균연령 57-60세)을 대상으로 약물에 대한 효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약군을 설정한 2중맹검시험법을 이용하여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군은 각각 12명씩 3개 시험군으로 하여 인삼 투여량별로 2개군 즉, 하루에 인삼 100mg 및 200mg 투여군과 위약군으로 구분하여 투여기간은 2개월로 하였다. 당뇨병의 예후와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수행능력, 혈당, 혈청 지질 및 체중변화 등을 조사하여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인삼투여군은 환자의 기분, 활력, 행복감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수행능력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 특히 200mg 투여군에서는 육체적 활동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인삼투여군에서는 공복시 혈당 감소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위약군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인삼을 복용한 8명의 환자는 정상수준의 혈당치로 회복되었다.

또한 인삼 200mg 투여군에서는 혈당조절을 반영하는 당화해모글로빈(HBA:혈당 조절이 안되면 이 수치가 증가함)과 동맥경화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PⅢNP(체내 구성성분인 collagen 성분의 일종:만성혈관성 질환 등에서 조직내 침착이 일어남의 수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당뇨병 치료요법에 있어 기분을 좋게 하고 정신적 육체적 수행능력을 좋게 하는 약물은 혈당평형(glucose balance)을 개선시켜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인삼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유용한 보조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삼의 효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체의 기능 회복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는 "신비한 영양"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인삼투여군은 환자의 기분, 활력, 행복감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수행능력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 특히 200mg 투여군에서는 육체적 활동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인삼투여군에서는 공복시 혈당 감소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위약군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인삼을 복용한 8명의 환자는 정상수준의 혈당치로 회복되었다.